

의학사서 양성을 위한 교과목 개발 사례

오의경

상명대학교 인문사회과학대학 문헌정보학과

Case Study on Course Development for Prospective Medical Librarian Education

Euikyung Oh

Department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angmyung University, Seoul, Korea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 course for prospective medical librarian education.

Methods: Three research methods was used step by step. First, the survey was conducted to examine the status and education environment of medical librarian. Second, through consulting with two competent medical librarians, information which need to course development and then two courses was developed. Third, the effectiveness of the courses examined through interviews with students.

Results: As a result, two courses prospective medical librarian education was developed, and students were considered strange in the courses, utilizing the medical drama to learn medical terminology was impressive to students, and overall increased understanding of the medical librarian.

Conclusion: Based on the development and operational practices of two courses, concluded that medical librarian education in the LIS undergraduate curriculum is possible. [J Korean Med Libr Assoc 2015;42(1,2):1-9]

Keywords: Medical librarian, Medical librarian education, Course development, Medical information service, Subject librarian

서론

우리나라와 일본 등 몇몇 국가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주제전문사서는 학부교육을 통해서 특정 주제 지식을 학습하고, 이후 문헌정보학적 이론과 기술을 습득하여 주제전문서비스 역량을 갖추게 된다. 우리나라 주제전문사서의 경우, 대학 교육과정의 특성상, 취업 후 직장 내 교육과 경험을 통하여 주제전문성을 구비하게 되고, 주기적으

로 제공되는 협회 및 전문단체의 계속교육 프로그램을 통하여 전문성을 유지하거나 확장해 나가는 것이 보편적이다. 다시 말해서, 공식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통하여 주제전문성을 일정 수준 이상 갖출 수는 없는 상황이다.

정보통신기술이 도서관 기반 서비스의 많은 부분을 대체할 것이라는 기대와 예상도 있지만, 오히려 높아진 이용자의 정보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더 선진적인 주제전문서비스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도서관의 정책관련

Received September 15, 2015, Revised October 15, 2015, Accepted December 16, 2015

Corresponding author: Euikyung Oh

Department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angmyung University, 20, Hongjimun 2-gil, Jongno-gu, Seoul 03016, Korea
Tel: 82-2-781-7565, Fax: 82-2-2287-0058, E-mail: oheui@smu.ac.kr

Copyright © 2015 The Korean Medical Library Association. All rights reserved

논의에서 ‘특정분야 주제전문사서 양성’과 ‘사서의 주제전문 교육’은 빠지지 않고 등장하고 있는 이슈 중 하나라는 점을 미루어 볼 때, 주제전문서비스와 주제전문사서의 중요성은 앞으로 더욱 강해질 것이며, 주제전문사서 양성 방안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이 나와야 할 시점으로 생각된다.

전통적으로 문헌정보학과 학생들은 주제전문성을 갖추기 위하여, 대학 내의 부전공제도, 다전공제도, 연계전공제도 등을 활용해 왔다. 최근 대학 교육정책이 융복합 인재 양성을 지향하면서, 이러한 제도들을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권장하는 분위기이지만, 학생들이 2~3학년에서 이러한 제도에 진입하게 되면, 주 전공인 문헌정보학 전공과목을 단일 전공으로 하는 경우보다 졸업 학점 기준이 완화되기 때문에, 주 전공에 대한 손실과 부족한 교육량이 우려되는 면도 없지 않다.

한국의학도서관협회는 전문위원회로 자격관리위원회를 두고 의학사서 자격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주제전문사서에 대한 자격을 관리하고 있는데, 의무사항으로 자격증을 취득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의학사서 네트워크를 유지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자리 잡았으며, 현재의 교육과정 내에서 특정 주제 서비스 능력을 교육할 수 있는 대안으로 활용되고 있다. 한국의학도서관협회에서는 의학사서 자격제도의 취지에 대하여 “의학사서의 계속 교육을 통한 신지식의 갱신으로 의학사서의 자질을 발전시키고 유지시키기 위한 목적과 대학의 문헌정보학과에서 의학사서를 양성하도록 의학정보학의 개설 및 연구를 유도하기 위한 장치”라고 표방하였다.

이러한 배경으로 보았을 때, 사서자격제도가 갖는 교육 성과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으며, 근본적으로 문헌정보학의 전공 교육과정 안에서, 특정 주제의 서비스 능력을 구비할 수 있는 교과목을 개발, 운영하여, 가능성을 점검해 볼 시점에 이르렀다고 보았다. 본 연구는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었다.

첫 번째 영역은 현직 의학사서들의 의학자격제도 현황, 자격제도에 관한 의견 그리고 자격제도의 교육적 성과를 예측하기 위한 설문조사이다. 두 번째 영역은 A대학에서 2014학년도에 개발한 2개의 의학 주제 서비스 관련 교과목의 개발과정이며, 세 번째 영역은 2015년 1학기부터 2015학년도 2학기 현재까지 2개의 교과목을 운영한 시점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알아보고, 교육적 효과를 예측해 보기

위한 인터뷰 조사이다. 연구는 A대학의 사례에 관한 보고이므로, 연구의 결과는 주제전문교육 대한 일반성을 검증하고자 의도된 것은 아니다.

연구 방법

1. 현직 의학사서들에 대한 설문조사¹⁾

현직 의학사서들의 의학자격제도 현황과 관련된 의견 그리고 자격제도의 교육적 성과를 예측하기 위하여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의 구성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의학사서의 인적사항과 현재 담당업무, 의학사서 자격증 취득 여부와 갱신 의사, 자격증 취득의 어려움 등을 조사하는 11개 문항이다.

두 번째는 자격제도의 교육적 성과를 예측하기 위하여 의학사서들의 ‘자기효능감’과 ‘자아존중감’을 측정하고, 측정결과와 의학사서 자격 취득여부와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자기효능감과 자아존중감은 많은 직종에서 직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나타났고, 또한 자기효능감과 자아존중감은 자신이 갖추고 있는 지식에 대한 자신감에서도 비롯되기 때문에, 의학사서자격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수행한 교육과 활동들과의 관계를 조사하는 것은 의미있다고 볼 수 있다. 자기효능감의 측정도구로는 김아영과 차정은[1]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것은 비교적 안정적이며, 개인의 일반적 자기효능감을 측정할 수 있는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고, 우리나라에서 많은 선행 연구가 이 도구를 사용하였다[2,3]. 특징은 기존에 출판된 자기효능감과 관련된 문헌들과 척도들을 종합 분석하여 자신감, 자기조절효능감, 과제난이도선호의 세 가지 하위 요인들을 측정하는 문항들을 구성하였다는 것이다. 신뢰도 분석과 타당도 검사에서 모두 유의한 결과를 보인 도구이며, 문항은 세 가지 하위영역에서 모두 24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24문항 모두에 대하여 ‘매우 그렇지 않다’에 1점, ‘그렇지 않다’에 2점, ‘보통이다’에 3점, ‘그렇다’에 4점, ‘매우 그렇다’에 5점을 주는 5점 척도를 사용하며, 문항에 따라 일부 문항은 역채점 하였다. 즉, 5점에 가까울수록 자기효능감

1) 본 연구의 현직 의학사서 대상 설문은 연구자가 2015년 2월 문헌정보학회지 49권 1호에 투고한 논문의 설문데이터와 동일하다. 본 연구에 필요한 문항들의 분석 결과를 일부 재사용하였다.

이 높다. 자아존중감의 측정은 Rogenberg의 척도를 사용하였다[4]. 우리말 문항으로 구성하기 위하여, 서초구립 반포종합사회복지관과 서울대학교 실천사회복지연구회가 펴낸 ‘사회복지척도집’의 문항을 사용하였다. 모두 10문항으로 이루어진 단일 차원의 척도라서, 본래는 고등학생들의 자아존중감을 측정할 목적으로 설계하였으나, 이후 다양한 직업을 가진 성인들을 포함하여 수많은 다른 집단에게 오랫동안 사용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도구가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자기효능감과 마찬가지로 5점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5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도록 일부 문항의 경우 코딩을 변경하여 역채점 하였다.

한국의학도서관협회 163개 회원 기관에 재직 중인 모든 사서들을 대상으로 2차례의 온라인 설문을 통하여 조사하였다. 2014년 12월 3일, 1차로 264명의 사서에게 설문을 발송하였다. 이들 중 17건이 잘못된 이메일 주소, 온라인 설문 차단, 수신거부 등의 이유로 유효하게 전송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정상적으로 전송된 메일은 247건이며, 2014년 12월 7일까지 31건을 회수하였다. 2014년 12월 8일, 한국의학도서관협회 사무국의 협조를 받아, 협회 사무국 명의의 조사 참여 협조의 글을 첨부하여, 회신하지 않은 사서들에 대하여 2차 발송을 실시하였다. 2014년 12월 29일까지 54건이 추가로 회수되었고, 최종적으로 모두 85건의 응답이 연구에 사용되었다. 회수율은 34.4%이다. 데이터의 분석은 「IBM SPSS Statistics 20」 통계 패키지를 사용하여 이루어졌다.

2. 의학사서 양성을 위한 교과목 개발

2014학년도 말, A대학은 학내 모든 학과가 대내외적 경쟁력을 얻고 비교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학과별 특성화 교과과정을 편성하는 작업을 하였다. A대학의 교육지향점에 맞춰, 문헌정보학과에서는 ‘보건의학정보전문가(의학전문사서) 양성’²⁾을 특성화 과제로 설정하여, 전체 교과과정의 이수 학년, 학기, 실습/이론 비율 등을 조절하였고, 취업분야를 전제로 한 로드맵을 정비하였고, 의

2) A대학 문헌정보학과에서는 최근의 소비자건강정보 이용자의 증가와 소비자건강정보서비스에 주목하는 상황을 반영하여, 기존의 의학사서 보다 더 큰 범위의 이용자를 타겟으로 하는 개념으로 보건의학정보전문가로 칭하였고, 특성화 과제 역시 ‘보건정보전문가 양성’으로 명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의학전문사서’와 동일한 표현으로 간주한다.

학사서 양성을 지원할 2개의 교과목을 신설하였다. 기존의 교과목들 중, 전통적인 문헌정보학 기초 교과목들은 저학년에 배치하여 기초와 기본에 충실하도록 하였고, 기타 교과목은 정보환경에 부합하는 명칭과 내용으로 정비하였고, 3학년에 보건의학정보전문가 양성을 위한 2개의 교과목을 편성하여, 특성화 기반의 교과과정을 완성하였다.

새로운 교과목을 개발하기 위해서, 각각 20년, 22년 차의 의학사서에게 자문을 구하여 교과목에 포함되어야 할 기본적인 내용과 교육 방법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였고, 의학도서관협회의 의학사서자격 요건에 제시된 과정 등도 참조하였다.

3. 교과목 수강생 인터뷰

2014학년도 말에 교과과정 정비를 완료한 후, 2015학년도 1학기에 1개의 교과목 강의를 완료하였고, 2015학년도 2학기에 또다른 1개의 교과목이 12주차 강의를 진행 중이다. 2개 과목 모두를 수강한 2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인터뷰의 목적은 의학사서 양성 교과목을 수강하면서, ‘의학도서관’, ‘의학전문사서’, ‘의학정보서비스의 중요성과 당위성’에 대하여 어떤 태도가 형성되었는지를 분석하여, 향후 강의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2개의 교과목 강의를 통하여 의학사서에게 필요한 지식이 구비되거나 강화된 결과가 명확하게 드러나기는 어렵다. 그러나 의학사서로 진로를 결정하고, 주제전문사서 및 의학사서에 대한 이해와 태도에 있어서는 의미있는 의견들이 도출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 집중하여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즉 의학사서의 지식과 능력에 대한 조사에는 목표를 두지 않았고, 전반적인 인식과 태도 형성을 통해, 교과목 운영의 지속 가능성을 예측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1. 현직 의학사서들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설문에 응답한 의학사서는 모두 85명이었으며, 성별, 연령별, 사서경력, 의학사서 경력에 대한 기초 통계는 다음과 같다.

남성은 25명(29.4%), 여성은 60명(70.6%)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많았다.

연령별로는 29세 이하가 8명(9.4%), 30세~39세가 34명(40.0%), 40세~49세가 26명(30.6%), 50세 이상이 17명(20.0%)으로, 30대~40대가 전체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다.

일반사서 경력에 있어서는, 3년 미만이 15명(17.6%), 3년 이상~5년 미만이 5명(5.9%), 5년 이상~10년 미만이 12명(14.1%), 10년 이상~15년 미만이 13명(15.3%), 15년 이상~20년 미만이 13명(15.3%), 20년 이상 27명(31.8%)로 나타났다. 20년 이상 경력자의 비율이 높았다.

의학사서 경력은 3년 미만이 22명(25.9%), 3년 이상~5년 미만이 6명(7.1%), 5년 이상~10년 미만이 9명(10.6%), 10년 이상~15년 미만이 15명(17.6%), 15년 이상~20년 미만 10명(11.8%), 20년 이상 23명(27.1%)로 나타났다.

사서들의 담당업무는 응답자 85명 중 22명이 모든 업무를 총괄하였고(25.9%), 담당하는 업무가 3가지 이상인 응답자는 43명으로(50.6%), 대다수의 응답자가 복수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도서관이나 연구소 도서관과 같이 1~2인의 사서로 구성된 환경을 가진 도서관들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응답자들이 담당하는 업무 중 가장 많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는 이용자교육으로 35명, 다음으로는 상호대차와 원문서비스 32명, 정보검색 27명, 연구지원서비스 26명으로, 이 업무들은 의학도서관의 핵심 업무임을 알 수 있다. 의학사서들이 담당하는 업무 중 이용자교육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구체적으로 PubMed, DynaMed와 같은 데이터베이스 교육, EndNote와 같은 서지관리 툴 교육 그리고 정

보윤리 교육 등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의학주제 특정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이론과 실제, 서지관리도구 이용방법, 연구 윤리 등에 대한 의학사서의 지식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의학사서 자격증 취득 여부에 대한 질문에서, 42명이 취득(49.4%), 43명이 미취득(50.6%)으로 조사되었다. 의학사서자격증 취득자 42명 중 34명(82.9%)이 유효기간 경과 후에도 재취득 의사가 있다고 답하였고, 7명(17.1%)는 재취득 의사가 없다고 하였다. 주로 시간부족, 직장과 사회의 인식부족, 제도의 비합리성을 그 이유로 들고 있으며, 구체적인 답변의 일부는 다음과 같다(표 1).

대체로 자격제도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적 여건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으로 보이며, 향후 여건이 조성되면, 재취득 의사를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자격증 미취득 이유는 '자격점수를 충족시키지 못함' 18명(66.7%), '필요성을 느끼지 못함' 8명(29.6%), '자격증 취득 절차를 잘 알지 못함' 1명(3.7%)로 나타났다. 또한 기타 이유로는 '계약직 신분으로 자격요건 충족을 위한 활동을 하기 어렵다,' '지방에서 일을 하고 있으며, 교육과 활동을 해야 하는데 대부분 수도권 집중되어 있는 것 같다,' '충분한 시간이 없다' 등으로 답하였다. 대부분의 자격증 미취득자는 자격점수를 충족시키는 것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의 자격제도 가지고 있는 4개의 자격 평가 항목 각각에 대하여, 자격 점수 충족의 어려움의 정도를 '매우 쉽다' 1점부터 '매우 어렵다' 5점까지 5점 척도로 조사하였다. 그 결과를 보면, 출판사항(4.17점), 학회 협회 활동(3.53점), 교육(3.28점), 실무경력(2.94점)의 순으로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무 외적으로 활동하거나 교육을 이수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현행 의학전문사서 자격제도가 의학사서들의 전문성 교육을 기본 취지로 갖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할 때, '시간부족'이나 '사회적 불인정' 등을 이유로 자격을 취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의학사서의 전문성 제고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고 유추할 수 있다.

응답자의 자기효능감은 세 가지 하위 영역에서 24개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측정결과, 자기효능감의 평균은 3.42점이며, 하위 영역별로는 자신감 3.47점, 자기조절효능감 3.18점, 과제난이도 선호 3.18점으로 나타났다. 대체로 보

표 1. 의학사서 자격증 재취득 의사가 없는 이유

'바쁜업무로 신경쓰기가 어렵다'
'현재 의학사서 자격증에 대한 직장 내 신뢰가 없음'
'사회에서 인정하는 특별한 메리트가 없는 것 같아서'
'자격유지 조건을 새롭게 하였으면 한다. 재취득조건을 완화했으면 좋겠다'
'의학사서 자격증의 발급기준이 합리적이지 못하다. 현장에서의 능력보다 협회활동 등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3년마다 신규갱신과 같은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은 의학사서의 자격이 3년마다 제로로 없어진다는 의미와 동일하므로 논리적이지 않음'
'무엇을 위한 의학사서 자격증인지 그 목적이 불분명하고 효용가치가 없다'

통 정도의 자기효능감을 보였으며, 의학사서자격증 취득 여부로 집단을 나누어 실시한 차이 분석에서는 의학사서자격증 취득자 집단이 3.52점, 미취득자 집단이 3.33점으로, 전자가 후자보다 자기효능감 점수가 높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다만, 하위 영역 자신감의 영역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냈다($t=2.193, p<.05$).

자아존중감은 10개 문항으로 측정되었고, 측정 결과, 평균 3.89점으로 대체로 높은 편이었다. 의학사서자격 취득자의 자아존중감은 미취득자의 자아존중감 보다 높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고, 10개 문항 중, ‘나는 가끔 나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든다’(역채점 문항) 문항에서 자격 취득자의 자아존중감 4.34점, 미취득자의 자아존중감 3.89점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결과이다($t=2.189, p<.05$).

2. 의학사서 양성을 위한 교과목 개발 결과

의학사서 양성을 위한 교과목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현장의 수요와 현재의 교육과정 사이의 접점이 필요하다. 현장의 수요를 조사하기 위하여, 각각 의학사서 근무경력이 20년 이상인 2명의 의학사서에게 자문을 얻었다. 2명의 의학사서는 모두 첫 직장인 현재 의학도서관에서 전직 없이 근무해왔고, 의학도서관의 서비스 변화와 발전에 대하여 혜안이 있어, 자문 내용에 신뢰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들은 의학사서 양성을 위하여 학부 교육에서 필요한 교육내용과 시기, 방법들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자

문 사서들의 의견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표 2).

의학사서들의 자문을 바탕으로 하여, 2개 교과목을 개발하였다. 교과목은 문헌정보학의 심화교과목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3학년 1학기에 ‘의학용어와 MeSH’, 3학년 2학기에 ‘보건의학정보원’을 편성하였다. 교과는 베타버전으로 운영하였기 때문에 2개 교과목간의 수강 순서를 지정하지 않았다.

‘의학용어와 MeSH’는 의학용어의 기초를 학습하고, 의학분야의 통제어휘인 MeSH의 구조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을 교육 목표로 설정하였다. 강의는 모두 16주로 진행되었고, 1주차는 강의 소개와 강의 사전 설문 조사로 진행되며, 8주차와 16주차는 시험이 치러졌고, 실제로 강의는 13주, 26회(3시간이 각기 다른 요일에 1시간과 2시간으로 분리되고, 1주에 3시간, 2회차로 진행)에 이루어졌다.

강의는 구조적으로 2개의 모듈로 구성되었는데, 첫째는 미디어를 활용한 의학용어 학습, 둘째는 통제어휘인 MeSH의 이해와 실습이다.

의학용어는 의학적 지식이 전무한 학생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기 위하여 ‘그레이아나토미 시즌 2’을 보면서, 드라마에 노출되는 의학용어를 중심으로 학습하도록 하였다. 이 방법은 의학적 지식과 용어 정보를 습득함에 있어서 체계성을 고려하지 않은 단점은 있으나, 교과목 자체에 대한 방향성을 찾고, 학생들의 집중도를 높이기 위한 전략이었다. 드라마 중 주요 스토리에 연계된 의미 있는 의학용어가 나올 때 마다 화면을 정지시킨 후, 용어에 대하여 설명한

표 2. 의학사서의 자문 의견

구분	의학사서의 자문 의견
교육 내용 (필수)	NLM의 DB들(MEDLINE 등), EMBASE, DynaMed, UpToDate, Web of Knowledge, JCR, Scopus 등의 활용 능력 MeSH indexing NLM Classification 기초의학용어(의학잡지명을 읽고, 이용자가 사용하는 키워드를 알아들을 수 있는 정도) 서지관리도구 의학도서관 이용자 연구 통계(SPSS, 빅데이터 분석 툴) PPT, Excel 등의 오피스 능력(고급수준)
교육 시기	문헌정보학의 기초 이해가 완성된 후, 3~4학년(문헌정보학개론, 분류, 목록, 경영론, 정보서비스, 주제별정보원 등이 선행되어야 함)
교육 방법	실습 위주의 교육(문헌정보학 기초과목이 이론적으로 잘 확립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함) 의학용어 등 의학적 지식이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의료인을 강사로 초빙하는 게 적절함 실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의학관련 콘텐츠 활용(미디어 활용 - 의학드라마, 의학전문 기사 사이트 등)

후 다시 그 부분을 재생하여 발음까지 확인하는 방식으로 계획하였다. 의학용어를 양적으로 많이 습득하지 보다는 교과목 자체의 생소함을 없애기 위한 것으로 기획되었으며, ‘그레이아나토미’는 6주차까지만 활용하였다. 이후에는 Body System에 따른 의학용어를 학습하도록 고안하였다.

MeSH는 생의학 분야의 대표적인 통제어휘로서, 색인의 도구일 뿐만 아니라 검색과 분류에도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도구이다. 학생들은 검색기반의 데이터베이스 활용에는 익숙한 편이나, 반대의 입장에서 즉, 주제 정보 색인에는 익숙하지 않다. MeSH의 기능과 의미를 다각적으로 이해시키기 위해서, 시스템적으로 좀 더 이해가 쉬운 PubMed 기능을 간략하게 익히도록 하고, 검색 결과에 나타난 MeSH 용어들을 확인하고, 구체적인 MeSH record를 이해·활용할 수 있는 단계로 발전되도록 계획하였다. MeSH 어휘의 기본 구조, Main Heading, SubHeading, MeSH on Demand 순으로 강의는 진행되었고, 3주간은 실제로 생의학 논문을 직접 MeSH로 색인하는 실습을 하도록 하였다.

‘보건의학정보원’은 의학관련 분야의 핵심 정보원의 특징과 활용법을 실습을 통하여 익히고, 심층웹 등 의학관련 정보원의 발굴 등을 목적으로 계획되었다. PubMed 등 NLM 계열의 DB들, KoreaMed 등을 우선적으로 익히고, 그 다음으로는 DB의 유형에 따라 Web of Knowledge, Scopus와 같은 인용색인 DB, DynaMed, UpToDate와 같은 EBM DB 등의 활용 능력을 기르고, MEDLINE Plus나 우리나라의 국가건강포털과 같은 소비자건강정보원이 제공하는 정보들에 대하여 학습하도록 구성하였다. 의학용어와 MeSH와 마찬가지로, 실질적으로는 13주, 26회 강의를 진행되며, 1시간 강의에서는 각 정보원에 대한 리뷰, 2시간 강의에서는 실습을 진행하는 것으로 조직하였다.

2개 교과목 모두 신설 과목으로, 강의 내용 구성만큼 중요한 것은, 교과목의 방향성에 관한 것이다. 학생들은 의학 사서를 목표로 수강하는 경우도 있지만, 신설 교과목에 대한 호기심, 개인적으로 적합한 시간이라는 이유로 수강할 가능성도 있다. 교과목의 정체성을 알리고, 목표를 전달하기 위하여, 2개 학기 모두 수강신청 3주 전부터 SNS를 활용하여, 사전 알림을 하였다. 사전 알림의 내용은 학과의 특성화 방향에 따라, 특성화 과제로 ‘보건의학정보전문가

양성’을 진행할 것이며,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과목이 새로이 편성되었음을 알렸고, 이어 새로운 교과목의 1-2주차 강의 내용을 요약하여 게시하였다. ‘의학용어와 MeSH’는 37명이 수강하였고, ‘보건의학정보원’은 현재 38명이 수강 중이다(12주차까지 완료).

3. 수강생 인터뷰 결과

2학기에 걸쳐 2개 과목을 모두 수강한 학생은 모두 15명이었다. 강의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는 매학기 중간 강의 평가와 학기말 최종 강의평가로 이루어지는 강의평가의 자유기술 문항들을 통해 알 수 있었다. 학생들은 ‘새로운 지식 습득이 의미있다’, ‘낮선 수업이라서 목표점이 무엇이 있는지 재생해야 했다’는 반응이 대세였고, 강의의 난이도에 대해서, 「의학용어와 MeSH」의 경우에는 ‘용어를 이해할 수 없어서 힘들다’는 의견이 다수 제시되었다. 「보건의학정보원」의 경우는 ‘기존의 DB탐색에서 주제만 집중되었다고 볼 수 있어서 특별히 어렵지 않다’는 의견들이 있었지만, 일부 학생들은 비슷비슷한 이용방법과 활용범위를 가지고 있는 듯해서 혼동되고 따라가기 힘들었다’는 의견도 있었다. 2개의 과목 모두에서 가장 많은 의견은 ‘의학적 지식이 전무한 상태이기 때문에, DB의 활용은 문헌정보학적 접근방식으로 따라갈 수 있었지만, 결과에 대한 해석과 판단을 할 수가 없고, 이런 정도로 전문서비스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는 것이었다.

좀 더 심층적인 의견을 취합하기 위하여, 2개 과목을 모두 들었던 학생들 중 2명의 학생(이하 ‘학생 1’, ‘학생 2’)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인터뷰는 사전에 준비된 질문 항목에 따라 개별적으로 1회, 약 30분간 진행되었다. 수강동기, 의학도서관과 의학사서에 대한 이해도, 강의에 대한 의견 등을 질문하였다. 학생 1은 남학생이고 학생 2는 여학생이며, 두 학생 모두 현재 학기는 8학기로, 7학기부터 신설된 2개의 교과목을 순차적으로 수강하고 있다.

수강동기에 대한 응답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학생 1: “1학년 때 부터 최근까지 공공도서관 취업을 목표로 삼아, 공공도서관 프로그램, 도서관 축제, 도서관 주최 공모대회 등 많은 경험을 하려고 했고, 의학사서에 대해서는 막연한 느낌을 갖고 있었다. 7학기에 「의학용어와 MeSH」를 수강할 때는 단순한 호기심에 의하여 시작되었다. 공공도서관은 다양성이 강조되는데 비하여 어떤

점이 중요한지 궁금해서 수강하게 되었다. 8학기 「보건의학정보원」수강은 「의학용어와 MeSH」가 강의 막바지에 이르러서야 감이 잡히기 시작해서 아쉬운 마음이 있었고, 연결해서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고, 취업과 관련해서 의학도서관에도 마음이 가기 시작해서, 좀 더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에 수강하였다”

학생 2: “성격상 활동성과 창의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공공도서관보다는 한 주제에 집중할 수 있는 전문도서관 서비스에 더 큰 매력을 느끼고 있었다. 그리고 한 주제에 해박한 사람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막연한 동경이 있었던 것 같다. 주제사서에 대한 안목을 넓힐 수 있을 것 같아서 수강신청을 하였고, 8학기에도 계속 수강한 이유는 이미 많은 전공 교과목을 수강하였고, 졸업 학점도 초과한 상태에서, 새로운 교과목이기 때문에, 큰 고민 없이 신청하였다”

2개 교과목을 수강하면서 알고 느끼게 된 의학도서관의학사서에 대한 인식에 관한 질문에서는 다음과 같이 답하였다.

학생 1: “주제사서에 대한 막연함에서 나올 수 있었고, 의학사서 자격제도에 대한 강의내용을 들으면서, 요건 충족이 어렵겠다는 생각을 했고, 계속 교육이 다른 관중 보다 강력하고 전문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생각보다 적은 수의 의학사서가 활동하고 있고, 전문도서관이기 때문에 서비스는 전문적이지만 소수의 인원이 근무하고 있다는 것도 알았다. 그 동안 간과했던 사실적인 부분들에 대한 이해가 넓어졌고, 어느 정도까지 인지는 모르겠으나, 전문역량이 가장 중요한 서비스 요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게 되었다. 만약에 의학사서로 취업을 한다면, 긴장 속에 공부해야 하겠다는 부담감은 더 들게 되었다. 전문 지식은 (다 이해하지는 못하였으나) 얻은 것은 의미 있다”

학생 2: “평소 주제전문사서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의학도서관 조직과 서비스에 대해서는 무난하게 이해하였다. 오히려 다른 도서관과의 차별점이 크게 두드러지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졸업하면, 큰 조직 속에서 전문가로 일하고 싶은 로망이 있었는데, 조직규모가 작고, 그렇기 때문에 전문화된 도서관이지만, 그 안에서는 많은 종류의 일을 동시에 수행해야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국내 정보원이나 국내 의학검색엔진 등을 활용하여 검색이나 기타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도구는 많았지만,

잘 정비된 정보원이나 신뢰성 있는 정보들은 외국, 특히 미국 자원을 활용해야 해서, 어학 실력이 출중해야 한다는 생각도 들었다. 우리가 아는 사서의 역량과 덕목 중에 해박한 지식과 뛰어난 어학실력은 늘 등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지식도 따라가기 어렵고, 어학실력은 더 늘려야 하는 현실 때문에 진로라는 측면에서는 부정적 요인들이 자꾸 자라난다.”

강의내용과 방법에 대한 느낌, 본인들이 의학주제 서비스 자질이 구축되었는지에 대한 질문에서는 다음과 같이 답하였다.

학생 1: ‘야심차게 수강신청을 했는데, 「의학용어와 MeSH」는 매우 어려웠다. 초반에 의학드라마를 보면서, 단어를 하나 둘 씩 알아갈 때는 도전의식이 더 커졌고, 재밌었다. 후반부로 가면서 용어가 전문적으로 발전되고, MeSH를 구조적으로 학습하면서 부터는 어려움을 느끼기 시작했다. 수업은 강의와 실습으로 이루어 졌는데, 실습에서 실생활에서도 알 법한 의학과 건강 이야기들이 예시였으면 더 재미있었을 것 같은 아쉬움이 있다. 「의학용어와 MeSH」에서 가장 좋았던 것은 의학드라마를 보면서 의학용어를 알아갔다는 것인데, 그 시간이 너무 짧았다. 「보건의학정보원」은 초반에 의학도서관과 의학사서 현황 강의만 빼면, 계속 같은 패턴으로 진행되었다. DB 리뷰 그리고 실습으로 구성되었는데, 실습할 때, 전혀 모르는 단어로부터 무엇인가 시도해야 했다. 개인차이가 있겠지만 나는 모든 것을 포털과 의학검색엔진으로 찾아서 정리해야 했기 때문에 실습이 지루하고 힘들었다. 그래도 「의학용어와 MeSH」에서 다루었던 지식들이 「보건의학정보원」시간 실습을 통해서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연계성이 있어서 좋았다’

학생 2: “교수님께서 분명히 이 강의는 의학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의학정보서비스를 위한 과목이라고 여러 번 강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고 수동적으로 강의실에 앉아 있게 되면, 내가 이 강의실에 왜 있는가 하는 정체성 혼란에 빠지곤 했다. 이렇게 의학용어를 암기하고 이해하려고 애쓰는 것이 진정 사서의 역량과 관계가 있는 것은 맞는가? 이렇게 공부하지 않아도 취업되면 직장 상사로부터 업무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 것은 아닐까? 대체로 「의학용어와 MeSH」는 초반에 매우 흥미로웠다. 그레이아나토미의 스토리를 따라가면서 보니까 용어도

자연스레 들렸다. 강의와 실습이 반복이 되었는데, 잘 모르는 단어와 잘 모르는 이야기로 실습을 하려니 힘들었다. 실습보다는 단순히 교수님 강의를 듣는 것이 나의 지식이 확장에는 더 좋았던 것 같다. 「보건의학정보원」에서 요즘 소비자건강정보원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비판, 다이어트, 만성질환, 병원정보 찾기 등 의학전문 DB를 공부할 때보다 집중이 잘 되었다. 약품정보사이트에서 검색해 본 것이 인상적이었는데, 얼마 전에 두통으로 타이레놀을 먹고 나서, 타이레놀을 열심히 검색했던 기억이 난다. 지식의 확장이 느껴졌다. 의학사서가 아니어도 알아두면 좋을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다. 도서관을 벗어난 지식 축적의 기회였다. 전반적으로 낯설음이 있기는 하였다”

논 의

연구 결과를 통해서, 몇 가지의 논의점들이 도출되었다.

현재의 의학사서들은 정규 교과과정에 의해서 의학 주제전문성을 갖춘 것은 아니지만, 의학사서자격제에 의하여 일정부분 전문성을 확보하였고, 유지·강화하고 있었다. 의학사서로서의 역량과 직무에 대한 자신감을 알아보기 위해 측정했던 자기효능감과 자아존중감 점수는 대체로 높은 편이었고, 의학사서 자격 취득 여부와의 관계 분석에서는 일부 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여, 의학사서 자격제도에 의한 교육과 전문활동에서 전문가로서의 역량 강화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었다. 그러나 계속교육 이전에 기본적인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정규교육과정에서의 교육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2개의 교과목을 개발하였는데, 국내에서 특성화 주제로 의학사서 양성을 설정한 사례가 없었고, 모범 사례로 사용할 만한 외국의 사례도 찾기 어려웠다. 외국의 경우는 우리나라와 교육시스템이 상이하여 그대로 차용하기 어려웠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현직 의학사서의 자문을 실시하였고, 자문 내용을 반영하여 교과목을 구성하였으나, A대학의 문헌정보학과 교육과정에서 2개 교과목이 신설되었고, 2개 교과목에 많은 정보원과 활용방법 등을 수록하게 되면서, 의학도서관 일반 현황, 의학사서의 철학, 의학도서관의 이용자 연구 등은 수록하지 못하였다. 향후 1~2년간 강의를 하면서, 피드백을 받고, 전문가 자문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보강해 나가면, 주어진 교과목

안에서, 핵심적인 주제전문성을 구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수강생의 인터뷰 결과에서 보면, 주제전문사서와 의학 사서에 대한 관심은 높고, 강의에 대한 호기심과 기대치는 매우 높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새로운 과목에 대한 익숙하지 않은 인상을 갖고 있었으며, 인문계 기반의 학생들이 의학주제 서비스를 수행한다는 것에 부담스러워 하였다. 기존의 교과목에서는 문헌정보학의 이론과 실재를 학습하였었는데, 특정 주제에 대한 이해를 해야 하는 것에서 교과목의 방향성을 놓치는 경향이 있는 듯 하였다. 교육내용이 어렵고, 단순한 교수방법 등에는 아쉬움을 토로하였지만, 의학사서와 의학도서관에 관심을 갖고 진로 영역을 넓혔다는 점에서는 대체로 의미 있는 강의로 평가하였다.

결 론

본 연구는 의학사서의 주제전문성을 대학에서 교육하고자 하는 목적의 교과목 개발에 대한 사례연구이다. 본격적인 교과목 개발에 앞서서, 현재의 주제전문성 현황을 알아보기 위하여 의학사서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수행하였고, 20년차 이상의 근무 경력을 갖고 있는 사서들의 자문을 얻고, 각종 정보원의 리뷰를 통하여 교과목을 개발하였다. 개발된 2개의 교과목은 「의학용어와 MeSH」와 「인체, 전자는 기초의학용어와 의학분야의 통제어휘인 MeSH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내용이며, 후자는 의학 및 소비자건강정보원에 대한 탐색과 활용 등을 내용으로 하였다. 2015년 1학기에 「의학용어와 MeSH」의 강의를 이루어졌고, 2015년 2학기 12주차까지 보건의학정보원이 진행되었다.

교과목에 대한 수강생의 반응은, 교과목의 내용과 방법 그리고 목적성에 대하여 낯설지만 사실인지를 통하여 인지하고 있었으며, 구체적인 의학주제서비스 능력 구비에 대해서는 어렵고 힘들다는 의견이지만, 의학사서를 진로로 정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기회였다고 느끼는 듯 하였다.

향후, 교과과정을 정교화하기 위하여, 현직 의학사서들의 직무분석과 직무에 필요한 기술들을 조사하고, 이를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기타 정규교육과정 외에, 특강, 세미나, 인턴활동 등으로 학생들의 의지와 안목을 확장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

국문 요약

본 연구는 의학사서 양성을 위한 교과목 개발의 사례연구이다. 현직 의학사서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하여, 현직 의학사서들의 현황과 교육환경을 알아보았다. 현직 의학사서들의 자문을 통하여, 교과목을 개발하였다. 교과목의 교육 효과를 수강생의 인터뷰를 통하여 조사하였다. 주요한 결과는 첫째, 현직 의학사서들은 의학자격제도를 안에서 계속교육을 받으며 주제전문성을 구비하고 있었으나 자격제도의 현실적인 한계로 인하여 다른 교육방법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둘째, 개발된 교과목은 「의학용어와 MeSH」, 「보건의학정보원」이다. 셋째, 수강생들은 교과목들에 대하여 어렵고 생소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지만, 의학사서와 의학도서관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고 생각하였다. 향후 교과목을 더욱 정교화할 필요가 있다.

REFERENCES

1. Kim AH, Cha JE. The measurement of self-efficacy. Proceedings of the Winter Conference of Korean Society for Industrial and Organizational Psychology; 1996. Korean.
2. Kang SY, Kwon HK, Cho MR. Effects of nurses' teamwork on job satisfaction at hospital: mediating effect of self-efficacy.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2014;14(12):881-894. doi:10.5392/JKCA.2014.14.12.881. Korean.
3. Shin SO, Roh EK, Kim ES. Caregiver's of the correlation between self-efficacy and quality of life. Journal of Korea Entertainment Industry Association 2014;8(3): 85-91. Korean.
4. Rosenberg M. Conceiving the self. New York: Basic Books; 1979.